

근대 한국의 서양인 식물조사와 문화·생태적 재현 - 플로렌스 크레인의 『한국의 들꽃과 민담』(1931)을 중심으로*

정호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문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목 차〉

- I. 머리말
- II. 근대 한국의 서양인 식물조사: 식물표본 제작을 중심으로
 - 1. 파리외방전교회의 식물조사와 유럽 식물계와의 네트워크
 - 2. 식물학자의 표본 수집과 학술 활동을 통한 지식의 확산
- III. 플로렌스 크레인과 한국 야생화의 문화·생태적 재현
 - 1. 식물학 지식과 미술 실력을 겸비한 연구가
 - 2. 한국의 향명과 토착 지식이 반영된 근대적 꽃도감
- IV. 자연탐사 활동을 통한 이미지 제작과 문화적 의미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13년 목회자인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온 플로렌스 H. 크레인(Florence H. Crane, 1887~1973)이 한국의 야생화를 연구하고 제작한 최초의 근대적 '꽃도감'인 『한국의 들꽃과 민담』(1931)의 주요 내용과 그 문화·생태적 의미에 대해 고찰했다. 크레인의 저서에는 한국 야생화를 수채화로 그린 이미지 정보와 야생화의 학명 및 향명 같은 근대적 식물학 정보, 그리고 수록된 식물에 대한 지역민과 학자들로부터 채록된 민담과 고서에서 참고한 인문학 정보가 포함되었다. 약 148종의 토종 식물을 월별로 정리해서 영문으로 작성된 이 저서는 한국의 토종 야생화 이미지와 토착 정보가 반영되어 단순히 한국의 자연을 관찰, 분류, 일반화했던 근대 과학 지식을 넘어 한국의 자연을 문화·생태적으로 소개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근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6082951); 이 논문은 2024 전국역사학대회 과학사분과 발표문을 수정·보완해서 작성되었음.

대시기 한국의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관점을 제시했기에 본 연구는 그 과정과 의의를 고찰했다.

주제어: 근대적 꽃도감, 토착 지식과 향명, 과학적 식물화, 근대 식물탐사, 이미지의 지식생산

1. 머리말

지리상의 발견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행된 새로운 지역에 대한 식물학 연구는 통상적으로 경제적 목적에서 진행되는 ‘경제 식물학’의 성격이 강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 식물탐사이다. 19세기에 스페인 탐험대는 식물탐사에서 채집 활동만이 아니라 다수의 예술가를 고용해 해당 지역 식물의 시각적 표현을 제작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¹⁾ 이때 식물학자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찰이 필수적이며 이를 토대로 관찰 대상의 생태적 특성을 정확하게 이미지로 표현하는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재현은 이 시기 자연사 수집물의 문화·생태적 측면을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정보를 표현한 그림은 자연탐구에서 대상에 대한 시각적 증거였지만 린네(C. Linné, 1707~1778)의 식물분류학 체계에서는 식물 표본이 대변하는 증거주의에 비해, 그림이라는 시각 자료는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받는 경향이 있다. 또한 린네는 식물에서 토착 정보는 특정한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식물분류 체계는 관찰에 근거한 보편적인

1) 1492년 콜럼버스(C. Columbus, 1451~1506)의 아메리카 대륙 상륙 이후, 신대륙의 자연탐사는 경제적 잠재력을 탐구하기 위해 동·식물, 광물, 자연환경 등에 집중되었고 이때 새로운 자연을 구성하는 환상적인 동물, 이국적인 식물, 원주민들이 만든 이미지와 사물에 대한 텍스트, 이미지, 표본 등 자연에 대한 다층적인 표현 방식이 활용되었다. 이후, 이미지는 자연을 묘사하고, 자연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데 유용함이 인정되면서 가장 활발하게 제작되기 시작했다. 스페인의 자연탐사에서 예술과 과학의 상호교차와 그림을 통한 신대륙 자연에 대한 시각문화 형성에 대한 연구는 Daniela Bleichmar (2018), *Visual Voyages: Images of Latin American Nature from Columbus to Darwin*, Yale University Press 참조.

분류 방식을 선호했으며 이때 지리환경 정보 및 생태문화 정보 등은 종의 분류학적 정체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²⁾ 식물분류학의 이러한 지적 토대는 20세기를 전후한 근대 한국에서 진행된 식물조사의 주요 기준이 되었고 실물표본 중심의 식물 채집 활동이 중심을 이루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한국의 근대 식물연구에서 이례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자료가 선교활동을 위해 목회자인 남편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며, 순천과 평양에서 미술교사를 했던 플로렌스 헤들스톤 크레인(Florence Hedleston Crane, 1887~1973)이 1931년 제작한 『한국의 들꽃과 민담(Flowers and folk-lore from far Korea)』(1931)이다.³⁾ 이 책은 개항 이후 진행된 한국 자연에 대한 서양인의 기록과 채집 자료와는 다른 구성과 접근 방식을 보이는데 한국 식물에 대한 채색 그림을 최초로 수록한 점과 해당 식물에 대한 한국의 민담을 포함시켜 광범위한 식물정보를 반영했다는 차별점을 보여준다.⁴⁾

2) 『자연의 체계(Systema naturae)』(1735) 초판에서 제안되었던 린네의 분류법은 식물분류의 일반화에 기여했으나 린네 스스로가 분류의 인위성을 인정했듯이 관찰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인위적인 설정 기준에 의한 인위적 장치였기 때문에 이 체계에서 담아내지 못한 생물의 특성과 정보 부족은 지속적으로 비판받았다. 즉, 분류의 인위성은 생물이 갖고 있는 자연적 특성, 다양한 환경에서 도출될 수 있는 생물간 공통점과 차이점 등 다양한 생물정보를 제외함으로써 분류 항목 간의 실질적인 연관성은 반영되지 못했다. 장 마르크 드루앵 (2011), 『철학자들의 식물도감』, 김성희(역), 알마, pp. 59~79; pp. 159~197.

3) 플로렌스 크레인의 1931년 초판본은 한국주재 외교관 부인들의 문화 및 자선활동 모임인 서울가든클럽(The Garden Club of Seoul)의 주도로 1969년, 1970년, 그리고 1987년에 각각 한정판으로 재간행 되었다. 번역서는 고등학생 윤수현의 번역으로 『최초로 서구에 소개된 플로렌스 H. 크레인의 한국의 야생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2003년에 민속원에서 발간되었고, 2008년에 행정부 관료였던 최양식의 번역으로 『한국의 들꽃과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선인에서 출판되었다. 본 연구는 원서명인 *Flowers and Folk-lore from far Korea*를 『한국의 들꽃과 민담』으로 번역한 책제목을 사용했다.

4) 한국 식물이 그림으로 제작된 최초 사례는 러시아 분류학자 팔리빈(J.W. Palibin, 1872~1949)이 1898년에 작성한 *Conspectus Florae Korea*이다. 팔리빈은 형태적, 분류적 측면에서 식물의 특징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제작했는데 대부분이 채색화가 아닌 선으로 형태를 구현한 선화이며, 난꽃 같은 일부 식물은 흑백 명암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승현 (2016), 「식물도감으로 본 한국 식물세밀화의 발전과정」,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3~15.

20세기를 전후한 근대 한국의 식물조사와 식물 그림에 대한 연구는 과학사, 미술사, 역사학의 영역이 교차된 복합적이고 특수한 주제이고 관련한 실증 자료가 많지 않은 관계로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관련한 주요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 식물조사에 대한 연구는 1910년을 전후한 한국 식물학 연구의 전개과정에 집중한 이덕봉의 연구, 일제강점기 근대 식물학 형성과 그 특성을 검토한 이정의 연구가 있으며, 서양인 식물조사에 대해 검토한 이창복·이문호의 연구는 초기 프랑스 선교사의 채집활동을 조망했다. 또한 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 발행한 식물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근대 식물학의 확산을 검토한 윤정란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⁵⁾ 한편, 식물 그림에 대한 연구로는 1940년대에 식물학자인 남편 도봉섭(都縫涉, 1904~?)이 채집한 초본식물 48점을 채색 그림으로 제작한 여성화가 정찬영(鄭燦英, 1906~1988)을 한국 최초의 식물세밀화가로 조망한 배원정의 연구, 한국 식물세밀화의 역사를 대한제국기부터 20세기 후반까지 통사적으로 다루었던 이승현의 연구가 있다.⁶⁾

본 연구는 앞선 선행연구에서 다루지지 않았던 영역, 즉 한국의 식물 그림이 어떤 경위와 배경에서 제작되어 표본중심의 근대 식물연구의 다른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지 검토했다. 특히, 플로렌스 크레인은 한국의 자연을 단순히 관찰하고 분류, 묘사한 것을 넘어 한국 야생화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꽃들에 대한 자생 정보와 토착 지식을 중요하게 다루었음에 집중했다. 플로렌스는 책의 서문에서 한국은 기후와 강설량의 차이로 특정 식물이 최남단에서만 제한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식물과 관목이 발견된다고 한반도 식물상에 대한 생태 상황을 밝혔고 한국에

5) 이덕봉 (1961), 「최근세 한국식물학 연구사: 일제통치하 한국에 있어서의 식물학연구에 관한 시설과 그 실태」, 『아세아연구』, 4(2); 이정 (2012), 「식민지 조선의 식물 연구 (1910-1945): 조일 연구자의 상호 작용을 통한 상이한 근대 식물학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창복·이문호 (1987), 「프랑스 선교사의 한국식물 연구」, 『교회사연구』, 5; 윤정란 (2020), 「근대전환기 서구 근대 식물학의 도입과 확산의 토대 구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2.

6) 배원정 (2019), 「근대 여성화가 정찬영(1906-1988)의 채색화조화 연구」, 『미술사학보』, 53(12); 이승현 (2016).

서 가장 잘 알려진 야생화와 이를 재배한 꽃을 책에 포함시킨 것으로 식물의 연구범위를 밝혔다.⁷⁾ 본 연구에서는 플로렌스가 조사하고 이미지로 재현한 야생화와 이에 대한 재배화를 통칭해서 야생화로 통일해서 서술했다. 그녀의 작업은 개항 이후, 한국의 식물조사에 도입된 과학적 분류체계가 미처 담아내지 못했거나 소외시켰던 한국의 자생적 토착 지식이 근대적 ‘꽃도감’의 내용으로 투영되어 완성되었다. 본 연구는 플로렌스 크레인(Crane)의 작업이 한국에서 발견되는 야생화 및 재배화에 대한 식물정보,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인문학적 지식을 융합시켜 수록된 식물에 대한 문화·생태적 표현으로 완성된 경위와 의미를 고찰하였다.

II. 근대 한국의 서양인 식물조사: 식물표본 제작을 중심으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국의 식물조사는 외국인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식물표본 채집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 시기 식물조사의 양상을 개관한다. 특히 개항이전부터 한국에 입국했던 파리의방전교회(外邦傳教會,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⁸⁾ 신부들이 식물조사와 표본 제작에서 큰 성과를 이루며 유럽 식물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동아시아 식물 연구의 권위자인 식물학자 어네스트 윌슨(E.H. Wilson, 1876~1930)의 한국 식물조사와 학술 강연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7) Florence Hedleston Crane (1931), "Preface," *Flowers and Folk-Lore from far Korea*, Sanseido co., Ltd., p. 1.

8) 파리의방전교회는 로마 교황청 산하 선교단체로서 1658년에 설립되었다. 이들은 파견 성직자가 포교지역에 거주하며 지역 언어와 풍습을 배우고, 신학교를 설립해 현지인 성직자를 양성해서 교회를 직접 운영하는 현지문화 친화적인 선교 방식을 추구했다. 파리의방전교회 한국교구는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선교사 파견을 요청해서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한 1831년에 교황 직속 선교지로서 '대목구' 제도가 설립되었다. 파리의방전교회 설립의 종교적, 정치적 배경과 한국교구 설립 및 근대시기 주요 활동 사항은 김선필 (2021), 『한국 천주교회사, 기쁨과 희망의 여정』, 도서출판 놀민, pp. 77~170 참조.

1. 파리외방전교회의 식물조사와 유럽 식물계와의 네트워크

파리외방전교회 신부로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식물조사와 표본을 제작한 대표적인 인물이 에밀 타케(Emile J. Taquet, 1873~1952)이다. 그는 첫 부임지로 1897년 한국에 입국해 부산 본당 주임신부를 거쳐 경남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했다. 그가 제주도에 부임한 것은 천주교도와 제주도민이 무력으로 충돌한 ‘이재수의 난’(1901)이 발생한 다음 해였으며 그는 지금의 서귀포 서흥동 일대인 홍로에서 선교활동과 식물 채집을 했다. 1915년까지 그가 채집한 식물표본은 유럽의 대학이나 박물관에 판매, 기증되었고 타케의 표본을 이용해 많은 논문이 유럽에서 발표되면서 세계 식물사에 한국 제주의 식물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가 새롭게 발굴한 제주 식물종에는 그의 이름을 따서 타케티(taquetii)가 포함되어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⁹⁾ 타케가 식물 표집을 판매한 것은 부족한 선교 사업에 수익금을 조달하고자 한 목적이 컸다고 한다.

이렇게 시작된 타케의 식물조사는 근대 식물분류학을 적용하고 그 증거로서 표본 제작을 중시하는 근대 한국 식물연구의 경향을 보였다. 특히 그가 채집한 제주도 자생 왕벚나무의 표본은 한일 왕벚나무 원산지 논쟁에서 이 나무의 제주도 원산지설을 뒷받침하는 귀중한 성과로 평가되었다.¹⁰⁾ 그는 제주도에 부임했던 1907년부터 1914년까지 식물 채집에 전념했으며 이때 4,272개의 제주 식물표본이 제작되어 현재 세계 각지에 보관되어 있다.¹¹⁾

9) *Dryopteris taquetii* Christ and *Rosa taqueti* H.Lév. 등이 대표적이며 ‘타케티’가 들어간 학명은 125종에 이른다. J.H. Barnhart (1965), *Biographical Notes Upon Botanists*, 3, G.K. Hall, p. 355.

10) 타케 신부는 1915년 제주에서 목포 본당으로 전임되었고 1922년부터 대구 성유스티노 신학교에서 활동하다가 1940년 은퇴 후 1952년에 사망했다. 타케의 식물표본과 식물분류 자료들은 1964년 교구청 화재로 안타깝게 모두 소실되었다. 강시영(2016), 「100여년 제주식물 세계화 획기적 업적」, 『한라일보』, 2016.3.1. 왕벚나무 표본 채집을 비롯한 타케 신부의 제주 식물조사 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홍규 (2019), 『왕벚나무에서 생명의 숲을 찾다: 에밀 타케의 선물』, 도서출판 다빈치 참조.

11) Chin-Sung Chang et al. (2021), “Historical collections of vascular plants in the Korean Peninsula by three major collectors in the early 20th century: U. J. Faurie, E. J. Taquet and E. J. Wilson,” *Biodiversity Data Journal*, 9, p. 2.

타케는 그보다 앞서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하며 식물 채집을 했던 파리 외방전교회 신부 위르뱅 포리(Urbain Faurie, 1847~1915)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포리는 프랑스 식물학자이자 파리자연사박물관의 프랑세(A.R. Franchet, 1834~1900)의 요청으로 주로 일본 식물을 조사, 채집했다.¹²⁾ 포리는 식물 채집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을 장기 방문했는데, 1901년 중부지역, 1906년 중부 및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1907년에는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식물표본을 수집했다. 포리가 세 차례에 걸쳐 한국에서 수집한 표본은 3,659개이며¹³⁾ 이 수집품은 아시아 식물전문가이자, 극동지역 선교사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채집 표본을 수집했던 레베예(H. Léveillé, 1863~1918) 주교에 의해 분류, 명명되었다.¹⁴⁾

포리가 2년에 걸쳐서 제주 식물조사를 할 때 같은 선교회 사제인 타케가 그를 도와 제주도의 식물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표본을 수집하는 데 참여했다. 일찍이 약용 식물에 관심이 많았던 타케는 포리와 함께 식물조사를 하면서 전문적인 채집 방식을 배웠고 이후 제주도에 부임해 있는 동안 독자적으로 제주의 식물조사를 이어가면서 제주의 식물상을 구체화시켰다. 한편, 포리는 타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한반도 식물 채집을 완성하고 유럽의 식물학자와 연계해서 한국의 식물상이 유럽에 소개되는데 일조했다. 그는 일본 식물전문가에서 점차 전문 영역을 한국에 이어 대만으로 확대하며 동아시아 근대 식물분류학 성립에 기여했다.

12) 포리는 프랑세가 사망한 1900년 이후에는 식물분류학자인 레베예(H. Léveillé, 1864~1918) 주교에게 채집품을 보냈다. 장진성, 최병희, 김휘, 이지연 (2010), 「외국인의 한반도 식물 채집 행적과 지명 재고: Urbain Faurie」, 『식물분류학회지』, 34(2), p. 88.

13) Chin-Sung Chang (2021), p. 3.

14) 레베예는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였다가 식물학에 헌신하고자 선교 활동을 그만두고 사제직은 유지한 채, 고향인 프랑스 르망(le Mans) 교구에서 1891년 국제식물지리학아카데미(Academie internationale de géographie botanique)를 설립, 본격적으로 식물학 연구를 했다. 그는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과 관계를 지속하면서 선교사들의 채집 표본을 수집했고 이 표본을 토대로 아시아 식물을 분류, 신종으로 명명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국제식물네트워크에 대한 사항은 정홍규 (2022), 『식물 십자군: 식물 채집가 포리 신부의 식물 선교와 생태적 미래』, 도서출판 다빈치, 2022, p. 163~170쪽 참조.

2. 식물학자의 표본 수집과 학술 활동을 통한 지식의 확산

비슷한 시기, 서양인 식물학자가 한국의 식물조사와 표본 수집을 진행한 사례는 영국의 식물학자 윌슨의 한국탐사이다.¹⁵⁾ 그는 동아시아에 분포하는 약 2,000종 이상의 식물을 서구 학계에 소개한 인물로 특히 중국 식물학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다. 윌슨은 1917~1919년 사이에 한국의 야생종과 재배종 조사를 위해 아널드식물원(The Arnold Arboretum of Harvard University) 탐사대와 함께 입국했다. 그는 이 조사여행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도 방문해서 해당 지역의 씨앗, 식물 자료, 표본을 수집, 제작했고 상당수의 사진 자료도 남겼다.¹⁶⁾(도판1,2)

윌슨은 타케와 포리가 1907년 아널드식물원에 보낸 한라산 구상나무 표본을 이미 접했지만, 직접 제주도 탐사를 통해 이 나무가 새로운 품종을 밝히고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라산과 한국 남부지역에만 서식하는 ‘아비에스 코레아나(*Abies koreana*)’임을 명명했다.¹⁷⁾ 그는 동아시아 탐사여행이 종료된 바로 다음 해에 한국 식물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낸 4개의 신종 활엽수에 대한 연구결과를 아널드식물원 저널에 게재해서 식물학계에 공식적으로 그 성과를 공표하고 인정받았다.¹⁸⁾

15) 윌슨은 1897년 영국 왕립식물원에서 근무하면서 침엽수에 대한 논문으로 후커(Hooker)상을 수상했다. 그는 1899년~1902년까지 중국에서 식물을 채집했고 305종의 종자, 35종의 구근, 906개의 식물표본을 영국에 보냈다. 그는 1906년부터 하버드대학 아널드식물원에서 근무하며 미국 내 중국 식물학 연구를 정립시켰다. 윌슨은 1917~1919년에 한국 식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1919년에 하버드대학 아널드식물원의 부원장이 되었다. 이상훈 외 (2019), 『영국왕립아세아학회 잡지로 본 근대 한국1』,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p. 379.

16) 윌슨의 1917~1919년 동아시아 탐사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사진 자료는 아널드식물원 홈페이지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관련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The Arnold Arboretum, “1917-1919: Expedition to Eastern Asia,” (<https://arboretum.harvard.edu/expeditions/expedition-to-eastern-asia/>, 2025년 3월 15일 접속).

17) 정홍규 (2019), pp. 149~153.

18) E.H. Wilson (1920), “Four New Conifers from Korea,” *Journal of the Arnold Arboretum*, 1(3), pp. 186~190.



(도판1) 식물표본 컬렉션, 1917-18 한국, 대만 수집품 ©아널드식물원



(도판2) 제주도 한라산 구상나무, 1907.10. 한라산 ©아널드식물원

윌슨의 한국 방문 시기에 주목할 만한 활동은 한국의 식생에 대한 연구를 영국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에서 강연하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영문학술지 트랜잭션(Transactions)을 통해 그 내용을 확산시켰다는 점이다.¹⁹⁾ 그의 연구논문에서 윌슨은 한반도의 식생은 150과 78속 3,000종에 이르며 목본식물이 600종인 것으로 개관했다. 그는 한반도 식생 형성을 지질학적 요소와 기후 조건으로 분석했고,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지역은 대륙성 기후이므로 활엽수가 주로 분포한다고 분석했다. 지질은 일부 현무암을 제외하고 대부분 화강암 지대이며 한국의 목본식물은 목련속 등 75속이 분포하여 빙하의 영향을 받은 유럽의 목본식물이 36속만 분포한 것과 다르다고 보았으며 약 160종의 고유한 목본식물이 자생한다고 설명했다.²⁰⁾ 그

19) 영국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주지역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1900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한국학 학술단체이다. 이 학회는 창립 이후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 자연에 대한 학술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 성과가 영문 학술지로 발간되어 한국학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창립 첫해부터 연간물로 발행된 영문학술지 *트랜잭션(Transactions)*은 서울, 요코하마,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런던, 파리, 라이프치히,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구독할 수 있어서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시켰다. 영국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창립과 영문학술지 *트랜잭션*을 통한 한국 생태연구에 대한 사항은 정호경 (2024), 「영문 학술지 『트랜잭션(Transactions)』의 발행과 근대기 한국 생태연구의 대두」,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주최, 『2024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149~161 참조.

20) E.H. Wilson (1918), "The Vegetation of Korea," *Transactions*, 9,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pp. 1~68.

는 특히 소나무 분포와 생태적 특징을 한국의 문화와 연계시켜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윌슨의 연구로 시작된 한국 자생식물에 대한 관심은 이후 한국주재 영국 성공회 주교였던 트롤로프(M.N. Trollope, 1862~1930)가 이어받아 일련의 연구로 발전시켰다.²¹⁾

윌슨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목본식물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하고, 강연과 영문 학술지를 통해 한국 식물상의 특성과 생태적 개괄을 시도했으며, 이는 당시 한국에 체류한 서양 연구자들이 한국의 자생식물과 자연을 연구하는데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다. 특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관심을 가졌던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소속 회원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한국의 자연탐사를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리의방전교회 사제들이 수행했던 식물조사와 표본 제작은 한국의 식물상을 국제 식물학의 맥락에서 연구될 수 있는 증거로서 표본제작에 집중되었다. 이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표본을 통해 먼 곳에서 한국 식물연구가 가능하게 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식물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에 거주했던 서양인들에 의해 국제 식물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처럼 식물분류학의 맥락에서 식물 채집과 표본 제작을 통한 식

21) 트롤로프는 한국의 목본식물을 조사, 목록화했고, 그 결과를 다음 3편의 논문으로 발표했다. 「한국의 수목: 조선에서 발견된 수목 중 가장 흔한 50종 향명(鄉名)의 예비 목록」, 「한국의 수목II: 첫 번째 목록에 포함된 수목에 관한 몇 가지 주석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발견된 수목 중 가장 잘 알려진 50종에 관한 두 번째 목록」, 「한국의 수목III: 한국에서 발견된 수목 중 가장 잘 알려진 50종에 관한 세 번째 목록」이 여기에 해당된다. 목록은 영문명, 학명, 확인자명, 식물의 특징을 밝혔으며 첫 목록에 50개, 두 번째 목록에 50개, 세 번째 목록에 53개로 총 153종의 목본식물을 수록했다. 관련해서 다음의 자료를 참조. M.N. Trollope (1918), "Arboretum Coreense: Being a Preliminary Catalogue of the Vernacular Names of Fifty of the Commonest Trees and Shrubs Found in Chosen," *Transactions*, 9,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pp. 69~90; M.N. Trollope (1920), "Arboretum Coreense part II: Being a Second List of the Best-Known Trees and Shrubs Found in Corea, with Some Prefactory Notes on Those Contained in Part I," "Arboretum Coreense partIII: Being a Third List of the Best-Known Trees and Shrubs Found in Corea," *Transactions*, 11,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pp. 39~100.

물조사가 이루어진 가운데 이러한 연구가 미처 수용하지 못한 한국 식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조사한 사례가 발견되어, 근대 식물분류학이 주도한 근대적 지식 생산에서 다른 측면을 밝혀주었다. 이 사례는 한국의 자생식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작하고 그와 관련한 한국의 토착 지식을 함께 조사해서 조사 대상에 대한 문화적이고 생태적인 맥락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이례적이면서도 현재의 폭넓은 자연관과 맞닿아 있다. 이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식물분류학적 관점과는 다른 관심과 태도에 기반한 한국 자생식물에 대한 연구도 존재했었음을 밝히는 것은 근대적 지식형성의 특수성을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다.

III. 플로렌스 크레인과 한국 야생화의 문화·생태적 재현

식물연구의 산물로서 관찰 대상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식물세밀화는 식물의 해부학적 미세구조와 성장주기를 함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연을 관조하고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과는 차별화된 태도와 접근을 요하는 영역이다. 이 분야는 식물학적 정확성과 생태적 특성을 탁월한 구도와 색감으로 표현하는 회화적 요소와의 융합을 통해 자연에 대한 문화적이면서도 생태적 표현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 능력의 융합을 필요로 하는데, 전문적인 식물지식과 미술 실력을 갖춘 플로렌스 크레인은 이러한 특수 분야를 수행한 독보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녀가 제작한 한국 야생화와 토착 정보가 반영된 ‘꽃도감’²²⁾은 이러한 저자의 능력이 총집결된 결과물로서 그 제작 경위를 추적하고 당시의 신문 자료를 통해 한국에서의 반응과 평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22) 플로렌스 크레인이 책 제목에서도 구체적으로 지정했듯이 본 연구는 이 책의 성격을 ‘식물도감’ 보다는 야생화 정보와 채색 세밀화로 구성된 ‘꽃도감’으로 특정하였다.

1. 식물학 지식과 미술 실력을 겸비한 연구가

플로렌스 크레인이 제작한 『한국의 들꽃과 민담』(1931)은 한국의 야생화 정보와 칼라 그림 도판으로 구성된 현재까지 발견된 최초의 근대적 ‘꽃도감’이다. 저자인 플로렌스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을 사랑했고 꽃을 그리면서 고향 미시시피(Mississippi)의 토착 식물을 관찰하고 식물학적 지식을 배웠다. 식물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미시시피 대학(University of Mississippi)의 철학 교수이자 감리교 목사였던 아버지의 영향 아래, 미시시피 대학에서 식물학을 전공하면서 더욱 발전했다. 또한 그녀의 예술적 재능은 10대부터 지역 화가의 아트 스튜디오에서 그림 수업을 받으면서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³⁾

그녀의 미술 실력은 미시시피 지역 언론사인 클라리온 레저(Clarion-ledger)가 후원하는 미술대회에서 코스모스를 그린 수채화로 1등상을 받을 정도로 높게 평가되었다. 나아가 이 작품은 세인트루이스 만국박람회(St. Louis World's Fair, 1904년)에도 출품되어 수채화 부문에서 2등상을 받아 플로렌스에게 2년간 프랑스 미술유학 특전도 주어졌다. 그러나 프랑스 유학은 그녀가 대학시절 만난 존 커티스 크레인(John Curtis Crane, 1888~1964)과 결혼을 약속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존 커티스가 콜로라도 대학(Colorado College)과 유니언 신학교(the Union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한 후, 목사가 되면서 그와 결혼한 플로렌스는 1913년 남편과 함께 한국에 입국해서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가 있는 전라도 순천에 정착하게 되었다.²⁴⁾

크레인 부부는 순천에서 3년간 한국어 교육을 받았고 남편 존은 순천매산학교(順天梅山學校) 초대 교장을 역임하는 한편, 평양신학교 교수로도

23) Deborah Freeland, “Florence Hedleston Crane,” *Mississippi Encyclopedia* (<https://mississippiencyclopedia.org/entries/florence-hedleston-crane/>, 2025년 3월 15일 접속).

24) Mayumi Morishita (2005), “Florence Hedleston Crande: A Mississippi Woman Painting in Korea,”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Mississippi, pp. 37~44.

활동하는 등 선교, 교육, 신학연구에서 업적을 남겼다. 플로렌스는 순천여 학교 산업부에서 자수 단추, 테이블보, 레이스 및 실크 짜는 법 등을 가르쳤고 완성된 제품을 미국에 판매함으로써 학생들이 학비를 벌고 선교단은 재정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1920년대 중반부터 이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면서 시 감상회, 들꽃 감상회를 자주 개최했고 이러한 활동은 꽃도감 제작의 토대가 되었다. 플로렌스는 1937년에는 평양으로 이주, 평양외국인학교, 평양여자신학교에서도 미술을 교육했다.²⁵⁾

크레인 부부는 건강상의 문제, 안식년 등으로 가끔 미국을 잠시 방문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태평양 전쟁으로 한국에서 강제 추방되는 1941년까지 한국에서 교육활동, 수공예품을 제작, 해외로 판매했던 산업부 활동을 지속했다. 이들이 한국에서 접한 때 묻지 않은 자연은 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환경이었고 물론 처음에는 불편함도 많았지만, 무더운 여름에는 해변이나 지리산으로 휴가를 가는 등 크레인 가족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점차 한국의 자연을 즐겼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또한 유창한 한국어로 한국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로부터 야생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했다.

플로렌스 가족은 여름 휴가지로 지리산을 좋아했는데, 지리산에 만발했던 수많은 야생화에 대한 기억은 한국 자연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게 된 계기였다. 플로렌스는 지리산에서 일상적으로 보기 힘든 “희귀한 꽃, 6~8가지 색조의 수국, 만개한 야생 목련, 백합, 들국화, 데이지, 그밖에 무수히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한 “언젠가는 한국의 지리산이 동양의 가장 훌륭한 휴양지가 될 것이며 한국을 방문한다면 꼭 방문해야 하는 장소”로 지리산 지역을 평가했다. 그녀의 아들 폴(Paul Crane, 1919~2005)도 노고단과 반야봉 사이에 특히 야생화가 많았고 매년 이곳에서 야생화 채집 경연을 했는데, 대부분 100종류 이상의 야생

25) 크레인 선교사 가문의 2대에 걸친 한국에서의 선교, 교육, 의료선교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재근 (2016), 「남장로교 선교사 존 크레인의 유산: 전도자, 교육자, 신학」, 『한국기독교와 역사』, 45, pp. 121~153 참조.

화를 채집했으며 풀이 최대 127종을 채집한 해에는 경연에서 우승했다고 기억했다.²⁶⁾

플로렌스는 아이들이 꽃을 채집하는 동안 항상 꽃그림을 그렸고 자동차로 이동 중에 잠시 멈춰야 하는 상황에서는 길가의 꽃들을 스케치했으며 서울과 평양으로 장거리 여행을 갈 때도 그 지역의 꽃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녀는 한국의 꽃이 미시시피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으며, 한국의 남부지역과 중부지역의 꽃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관찰을 통해 파악했다. 플로렌스가 일상에서 야생화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스케치로 남긴 것을 수채화로 제작하게 된 계기는 미국 남장로교단의 최대 후원자였던 부유한 사업가 조지 와츠(George W. Watts, 1851~1921)에게 후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 점의 꽃그림을 선물하면서 시작되었다.²⁷⁾

그러나 와츠가 1921년 사망하면서, 미망인이 플로렌스에게 선물 받은 꽃그림을 정리할 것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한국 야생화 그림의 과학적이고 예술적 가치를 알아보고 이를 책으로 출판할 것을 플로렌스에게 권고하고 출판 비용에 대한 지원도 함께 제안하였다. 플로렌스는 이를 받아들여 와츠에게 선물한 꽃그림을 바탕으로 추가 그림과 꽃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키고 한국 야생화에 대한 토착 정보가 반영된 꽃도감을 제작하게 되었다.

플로렌스의 꽃도감 제작 활동은 이른바, 표본중심의 분류학적 체계에 한국의 자생식물을 등재시키고 표준과의 교차검증을 통해 변종과 이종을 연구하는 당시의 주류 식물연구는 아니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분류학적 체계에 따른 식물조사와 연구는 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바탕으로 수행될 수 있는 특수한 분야였고, 비슷한 영역에서 활동했던 서양인 연구자

26) Mayumi Morishita (2005), pp. 60~61.

27) 조지 와츠는 노스캐롤라이나 더럼(Durham, North Carolina)출신의 사업가이자 금융인으로 순천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조성되는 비용, 순천선교부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교사 연봉과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으로 연간 13,000달러를 지원했고 와츠 재단은 2차 세계대전까지 한국 선교부의 학교사업을 지원했다. 임희모 (2021),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회의 순천선교부 개설 배경 연구: 1892년-1912년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53(1), pp. 269~270.

들도 해외의 전문가 및 전문 기관과 네트워크를 이루며 연구가 지속될 수 있었던 연구 환경을 감안해 보면, 그녀의 활동은 이들과는 다른 목적과 관심에서 비롯된 조사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식물조사는 분야별로 전문화되고 미시적인 분류학에 몰입된 연구 토대가 도입된 시점에서 플로렌스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식물조사와 연구 방식을 도입했고 이러한 미시사에서 놓치고 있었던 자생 식물의 토착 정보를 반영하는 통합적인 식물정보의 구축을 시도했다. 이는 그녀가 토착 지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었던 언어 및 연구 역량, 식물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질과 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플로렌스 크레인의 학문적 정체성과 역할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적어도 그녀는 식물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연구자로 규정할 수 있으며, 다만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 안에서 뛰어난 미술 실력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에서는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토착 지식이 반영된 근대적 꽃도감 작업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한국의 향명과 토착 지식이 반영된 근대적 꽃도감

플로렌스는 야생화를 조사 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면서 기존의 분류학적 체계로 식물을 조사 분류하는 방식과는 다른 근대적인 꽃도감을 제작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자생하는 야생화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48종의 꽃을 스케치하고 생태적 특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완성했다. 또한 야생화의 학명, 향명, 쓰임새, 꽃말 등의 식물학 정보를 조사하고 꽃에 얽힌 민담에 대한 지역 주민과 학자들의 이야기를 채록하며 한국 고서에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인문학 정보를 조사해서 내용으로 수록했다.²⁸⁾ 이렇게 수집된 자료와 완성된 개별 꽃의 이미지

28) 크레인 부부는 매일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학자, 스님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초대해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식물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식과 정보를 수집했다. 예컨대, 저녁 식탁을 장식한 꽃에 대해 대화하면서 꽃과 관련한 시, 약용 효과 및 쓰임새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가 수집되었고 이 모임은 야생화에 대한 토착 지식을 수집하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민담은 한국인의 철학, 신념을 비롯해 사회적 편견에

는 꽃이 개화하는 월별로 편집되었다. 시기별로 어떤 꽃과 식물이 성장하는지 월별로 배치된 도감의 형식은 계절 변화에 따른 시간 정보가 책장을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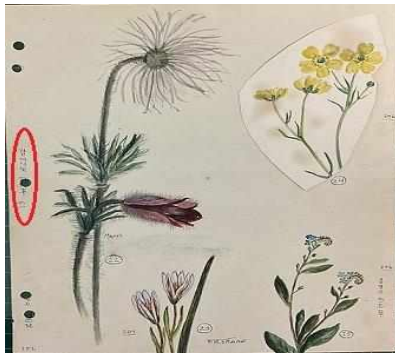
같은 달에 피는 꽃들이 한 장에 함께 그려지고 때로는 추가로 덧붙여져 꽃도감을 구성하는 시간적 배치에 따른 꽃들의 목록이 구성되었다. (도판3)은 3월 꽃을 편집한 그림으로 우측 상단에 종이로 덧붙여진 노란색 꽃은 미나리아재비과의 ‘개구리미나리’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야생화지만, 꽃도감에는 구체적인 향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드문 경우이다. 한편 좌측에 붉은 원으로 표시된 향명 옆의 ‘할머니꽃(冠帽峰)’은 꽃봉오리와 꽃이 다 지고 난 모습을 함께 겹쳐서 꽃의 성장주기를 시각적으로 편집했고 꽃잎, 꽃받침, 꽃대의 표면으로 미세하게 흰 털이 난 생태정보가 섬세하게 표현됐다. 특히 ‘할머니꽃’이라는 독특한 명칭이 유래한 민담을 꽃도감에 수록함으로써 독자에게 식물정보만이 아니라 자생지역의 인문학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전달해 꽃과 관련한 문화·생태적 표현을 시도했다.

플로렌스의 꽃도감에 실린 야생화 중에는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관련 정보도 부족하고 일상에서는 접하기 힘든 야생화도 있다.²⁹⁾ 34종에 이르는 꽃이 수록된 8월 꽃목록의 첫 장에 그려진 ‘누른종덩굴’이 그러한 예이다.(도판4 좌측, 붉은 원 우측) ‘덩글럭굴’이라는 향명을 지닌 ‘누른종덩굴’은 미나리아재비과 식물로 지리산 고산지대와 강원도 일대에 분포하며 변이가 심한 종으로 알려져 있다. 본 꽃도감에는 꽃이 개화된 형태가 아니라 지고 난 이후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저자가 식물조사를 했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플로렌스는 밝힌 바 있다. Mayumi Morishita (2005), p. 67.

29)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하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사이트는 총 61,230종의 국가생물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중에 식물은 8,306종이며 ‘누른종덩굴’은 멸종 위기종으로 적색자료집 종정보에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정리되어 있다. 관련 사항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홈페이지(https://species.nibr.go.kr/Endangeredspecies/rehome/redlist/redlist_new_view.jsp?link_gbn=ex_search&rlcls_sno=825&&page_count=, 2025년 3월 15일 접속).

던 당시의 구체적인 꽃모습을 확인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도판4)에 표시된 좌측의 ‘누른종덩굴’로부터 시계 역방향으로 ‘자주깍의 비름’, ‘동자꽃’, ‘전춘라’ 등 주로 고산지대에서 성장하는 생태적 유사성을 지닌 야생화를 서로 중첩, 교차시키거나 화면 하단에 배치해서 비슷한 생태정보를 시각적으로 구성했다. 또한 화려한 붉은색 ‘동자꽃’을 중앙에 위치시켜 시각적 포인트를 주는 등 화면구성에서 저자의 미술적 감각과 식물정보의 융합을 잘 보여준다.



(도판3) 플로렌스 크레인, <할머니 꽃>(좌측 향명부분 표시), 1919, 종이에 수채
©미시시피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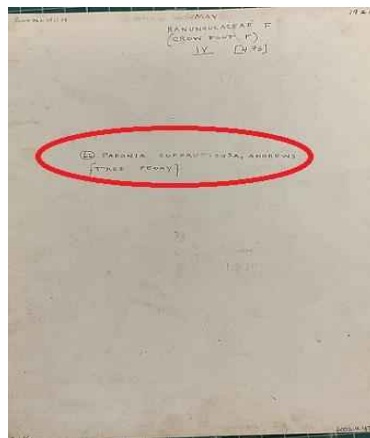


(도판4) 플로렌스 크레인, <누른종덩굴>(좌측 향명부분 표시), 1922, 종이에 수채
©미시시피대학교박물관

수채화로 채색된 야생화 이미지는 근대적 식물도감에서도 사용된 사례가 없는 이례적인 작업이며 이와 함께 학명과 쓰임새, 꽃말 등의 식물정보와 꽃에 얽힌 민담이나 쓰임새, 약용 정보가 영어로 작성되어 시각정보와 과학적 식물정보, 그리고 인문학 정보가 융합되어 근대적 꽃도감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15종의 야생화가 실린 5월의 꽃목록에서 단독으로 수록된 <모란>은 활짝 개화한 자색 모란의 우측에 ‘함박꽃(白芍藥)’, ‘목단(牧丹)’의 두 가지 향명이 한글과 한자가 병기되어 수기로 적혀있다. 또한 꽃이 그려진 후면에는 학명이 기록되어 있어 꽃도감으로 간행될 때 꽃에 대한 정보로 활용되었다.(도판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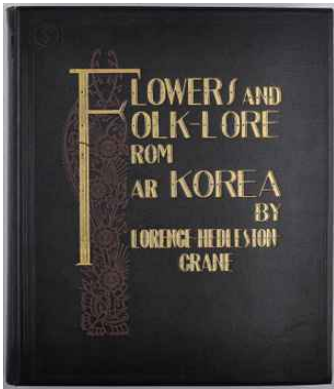


(도판5) 플로렌스 크레인, 〈모란〉,
1921, 종이에 수채, 우측에 향명이
한자와 병기됨
©미시시피대학교박물관



(도판6) 〈모란〉 후면, 학명이
메모되어 있음
©미시시피대학교박물관

이렇게 월별로 완성된 식물정보는 과학적이고 분류학적 정확성을 위해 동아시아 식물학의 권위자들에게 감수와 추천을 받았다. 먼저 이 분야의 전문가였던 동경제국대학교의 나카이 다케노신(Nakai Takenoshin, 1882~1952)과 경성제국대학교의 이시도야 츠토무(Ishidoya Tsutomu, 1891~1958)에게 감수를 받았고 뉴욕 식물원(New York Botanical Garden)의 엘머 메릴(Elmer D. Merrill, 1876~1956)로 부터는 책의 내용에 대한 추천을 받았다. 또한 꽃도감의 인쇄 품질을 위해 나카이의 식물학 도서를 발간했던 일본의 산세이도 출판사(Sanseido Press)에서 책이 발간되었는데, 이때 칼라 도판의 색감을 위해 독일 종이에 목판 인쇄 기법이 활용되었고 호주산 가죽으로 장식된 고급 도감으로 완성되어 1931년에 발간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으로 책은 아시아에서 판매되지 못하고 대신 뉴욕의 맥밀란 출판사(Macmillan Company)가 미국을 중심으로 책의 판매를 책임지게 되었다.(도판7,8)



(도판7) 『한국의 들꽃과 민담』(1931), 표지



(도판8) 『한국의 들꽃과 민담』(1931) 첫장

영문으로 제작되었고 고급 장정된 『한국의 들꽃과 민담』 초판본의 주 배급처가 미국이었다는 점은 플로렌스의 책이 한국의 독자들이나 식물 연구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플로렌스의 아들인 폴의 증언에 의하면, 1933년에 서울 동아일보 사옥에서 플로렌스의 그림이 전시되었으며 상당히 많은 관람객이 전시기간 내내 방문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⁰⁾ 관련한 신문자료를 검색, 취합해서 당시 전시회에 대한 사항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33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동아일보 사옥 3층 전시장에서 《구례인부인 회화전(具禮仁夫人 繪畫展)》이라는 제목으로 플로렌스 크레인의 개인전이 개최되었고 약 1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는데 전시작품의 비율은 한국 풍경화와 식물화가 다수를 이루고 미국과 일본 풍경을 그린 작품도 일부 출품되었다.³¹⁾ 주목할 점은 전시 후원기관으로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조선도서관 건립을 위한 후원회’와 동아일보 학예부가 공동으로 전시를 후원해서 전시 및 『한국의 들꽃과 민담』에 대한 언론 홍보, 전시장 대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당시 전시 입장료는 유료였으며 입장 수입은 컬럼비아대학교 조선도서관 후원회로 기부되

30) Mayumi Morishita (2005), pp. 73~74.

31) 「朝鮮情調 넘치는 具禮仁夫人 繪畫展」, 『동아일보』, 1933.10.17.

었다.³²⁾

신문은 전시 홍보를 위해 출판자 가운데 일부를 지면으로 소개했는데, 〈독립문〉, 〈성벽〉, 〈단군제단〉, 〈야생국화와 갈대(野菊갈대)〉 같은 작품이 신문에 수록되었고 이를 통해 플로렌스가 한국의 역사적 건축물도 상당수 그렸던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독립문이나 단군제단은 민족적 자주성과 역사성을 보여주는 대상이어서 한국인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 홍보에는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전시장에서 이들 작품은 한국의 풍경화, 식물화와 함께 감상되었을 때 더욱 의미 있었을 것이다.³³⁾

3일간의 전시기간 동안 많은 관람객이 계속해서 방문했고 전시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는 학생 단체관람과 전시를 못 본 인파가 한꺼번에 몰릴 것이 예고되었다. 이를 대비하고자 주최 측이 안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정도로 많은 관람객이 플로렌스의 작품과 저서에 관심을 가졌고 전시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³⁴⁾ 전시를 소개한 기사 중에는 플로렌스의 저서, 『한국의 들꽃과 민담』을 다루면서 한국의 고유한 이름이 함께 병기된 원색 도감의 아름다움과 꽃에 얽힌 한국의 시와 민담에 대한 상세한 감상을 전달하기도 했다.³⁵⁾

살펴본 바와 같이 1933년 10월에 있었던 플로렌스 크레인의 전시는 한국의 토착 지식을 자생식물에 반영했던 저자의 최종 결과물을 한국의 대중을 상대로 유포하고 확산시키는데 효과적인 활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자생식물에 향명을 부여해 본격적인 우리말 식물목록 집인 『조선식물향명집(朝鮮植物鄉名集)』(1937)의 저자들이 거의 같은 시기

32) 전시홍보 사항은 「具禮仁夫人 繪畫展」, 『동아일보』, 1933.10.18. 참조; 성인 30전, 학생 15전, 학생단체는 1인 10전의 입장료 사항은 「具夫人繪畫展覽」, 『동아일보』, 1933.10.19. 참조.

33) 신문에서 소개된 전시 작품은 다음의 기사를 참조, 「具禮仁夫人繪畫展畫帖 其一」, 『동아일보』, 1933.10.19; 「具禮仁夫人繪畫展畫帖 其二」, 『동아일보』, 1933.10.20; 「具禮仁夫人繪畫展畫帖 其三 『檀君祭壇』」, 『동아일보』, 1933.10.20.

34) 「具禮仁夫人繪畫展 延日滿員의 盛況」, 『동아일보』, 1933.10.20.

35) 一記者, 「크레인부인의著書 朝鮮꽃과民譚」, 『동아일보』, 1933.10.21.

에 비슷한 문제의식과 필요성으로 식물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플로렌스의 전시와 꽃도감에 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접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³⁶⁾ 그러나 플로렌스가 한국의 토착 지식을 조사, 수집하기 위해 한국인 지식인 집단을 지속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식물학자들과 직접적으로 만난 기록이나 증언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플로렌스의 거점 지역이 순천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인 1세대 식물학자들의 존재가 일본 연구자들에 비해 서양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식물조사를 했던 전문가 집단과의 교류 사항은 추후 검토할 중요한 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개항 이후 20세기를 전후해서 한국의 자연에 대한 외국인 저작물이 상당수 제작되었지만, 대다수가 시각정보 보다는 텍스트 기반의 민속적 생활상을 전하는 기행문이 다수였다. 플로렌스 크레인의 책은 한국의 자연을 근대 과학인 식물학적 맥락에서 조사, 소개하면서도 이제까지 분류학적 과학체계가 관심두지 않았던 한국의 자생적 토착 지식과 야생화 이미지가 함께 수록되어 식물을 매개로 다양한 인문학적 정보, 문화적 의미작용이 함께 공존하고 융합되어 독특한 문화·생태적 재현을 시도한 초기 사례로서 그 의미가 있다.

IV. 자연탐사 활동을 통한 이미지 제작과 문화적 의미

플로렌스 크레인의 꽃도감 발행 이전에 한국의 야생화를 조사하고 채색 이미지로 제작한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한국의 토착

36) 일제강점기 전문 식물연구를 진행했던 1세대 한국인 식물학자들인 정태현(鄭台鉉, 1882~1971), 도봉섭(都縫涉, 1904~?), 이덕봉(李德鳳, 1898~1987), 이휘재(李徽載, 1903~1986)는 『조선식물향명집(朝鮮植物鄉名集)』 연구를 위해 조선박물연구회를 1933년에 조직하고 조선 각 지역의 식물명을 현장조사, 수집하는데 매진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근대 식물학 형성과 특성에 대해 연구한 이정 (2012), pp. 199~246 참조.

정보를 식물정보에 반영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작업이어서 그 구체적인 사항과 한국에서의 전시 과정 및 내용을 당대의 신문 보도를 통해 재구성해 보았다. 이후 크레인의 꽃그림은 1939년 12월 4일부터 이듬해 1월 8일까지 미국 뉴욕 식물원(The New York Botanical Garden)의 산하 박물관에서 100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미국의 관객들에게도 소개되었다.³⁷⁾ 전시된 그림의 대부분은 『한국의 들꽃과 민담』에 수록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플로렌스는 1940년 6월에 발간된 뉴욕 식물원 저널(Journal of the New York Botanical Garden)에 한국 식물에 대한 글을 기고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이 탄생한 순천지역과 지리산에 얽힌 민담, 식물을 활용한 염색기법으로 제작된 한국 전통의상의 아름다움, 봉숭아꽃으로 물들인 다섯 손가락의 의미 등 한국의 풍습을 소개함으로써 식물 그림과 연관된 한국 문화에 대한 역사적, 지역적, 인문학적 지식을 미국의 독자들에게 소개했다.³⁸⁾

이처럼 자연탐사에서 시각 이미지와 이를 통한 문화적 의미작용을 중심에 두면 근대적 지식 생산과 확산에 대한 보다 생생하고 심층적인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도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식물조사에서 대규모 이미지를 제작한 사례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한국에 비해 활발히 진행되었고 그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짚어보면서 자연탐사에서 이미지의 역할과 중요성, 문화적 재현의 의미를 조망하고자 한다. 이는 플로렌스 크레인의 사례를 통해 논의한 근대 한국의 식물조사에서 이미지의 역할과 토착 지식이 반영된 문화·생태적 의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자연탐사 활동에서 시각 자료의 중요성과 제작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은 18세기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고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한 탐사대의 활

37) Editorial Department (1939), "Notes, News, and Comment," *Journal of the New York Botanical Garden*, 40(469), pp. 27~28.

38) Florence H. Crane (1940), "Botanical Lore from Korea," *Journal of the New York Botanical Garden*, 41(486), pp. 144~146.

동이 그 좋은 예이며 이들은 실제로 신대륙 탐험에서 조사한 식물을 상당수의 그림으로 남겼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탐사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신대륙의 식물을 조사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탐구하면서도 마드리드의 왕립 식물원과 왕립 자연사박물관을 위한 컬렉션을 수집할 때는 상당한 수준의 시각자료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즉, 탐사대가 식물조사 자료, 표본 수집, 분류학적 정보 못지않게 이미지를 생산하는데 적극적이었다는 점이다. 탐사자들이 자연사적 시각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투여한 노력은 이미지가 식물조사 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점을 시사한다.³⁹⁾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연탐사에서 시각자료에 대한 연구는 과학과 예술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융합하고 이미지 제작을 통한 자연사적 지식을 축적, 유포한 실증적인 자료에 대한 한계도 있기 때문에 연구의 제한점과 어려움이 있는 분야이다. 또한 근대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시각문화가 형성되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이론적,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제로 정리되기 힘든 측면도 있다. 서구학계에서는 예술과 과학이 각각의 지식체계를 형성하면서도 상호작용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통합적으로 시도했음을 개괄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⁴⁰⁾

39) 18세기 스페인의 식민지 자연사 연구에서 탐험대가 예술가를 고용해 시각적 생산성에 집중한 사항에 대한 연구는 Daniela Bleichmar (2009), "A Visible and Useful Empire: Visual Culture and Colonial Natural History in the Eighteenth-Century Spanish World," Daniel Bleichmar, Paula De Vos, Kristin Huffine and Kevin Sheehan(eds.), *Science in the Spanish and Portuguese Empires, 1500-1800*,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90~310 참조.

40) 과학과 예술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근대적 자연관과 인식체계 형성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개괄적인 연구서들이 주목할 만하다. 예술사의 관점에서 외부 세계와 대상을 과학적으로 재현한 역사를 기술하면서 자연사 삽화가들의 작품을 소개한 마틴 켐프(Martin Kemp)의 *Visualizations: the nature book of art and science(2000)*, 미술사학자, 철학자, 건축사,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과학 이미지의 재현 양상을 과학의 시각적 증명의 문제로 탐구한 캐롤라인 존스(Caroline A. Jones)와 피터 갤리슨(Peter Galison)이 편저한 *Picturing Science, producing art(2014)*, 과학 경험에 대한 이미지 제작이 근대 과학의 객관성 형성과 과학 지식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소개한 로레인 데이스턴(Lorraine Daston)과 피터 갤리슨(Peter L. Galison)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지식체계로 도입된 근대 과학 분야에서 시각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두 영역을 교차해서 과학적 이미지 제작을 주도한 인물이 전무하고 관련한 사례를 찾기 힘든 상태여서 더욱 연구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미술사 분야에서 자연사 삽화는 역사적 사건이나 고귀한 대상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독자적인 예술 장르에 속하기에도 한계가 있으며, 사용된 매체도 종이에 수채화나 템페라로 채색된 비교적 간단한 것들이어서 대단한 테크닉으로 평가되는 분야가 아니었다. 그래서 상당히 잘 그려진 아름다운 식물세밀화는 주요 미술관의 소장품이나 주요 전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과학적 식물화는 과학과 미술이라는 체계화된 학문 영역에서 규정하는 위대한 예술이나, 중요한 과학적 성과로 평가될 기회조차 부여되기 쉽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소외된 채, 분과 학문의 틈새에 놓이게 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식물탐사 연구에서 정치적, 지적, 경제적 목적을 중심에 둔 탐험의 경우, 탐사과정에서 수집된 시각자료는 채집 표본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거나 표본의 보충자료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자연탐사가 보다 다양한 관점과 측면에서 이루어졌음에 주목하고 시각자료를 통한 자연과 문화·생태적 재현에 대한 연구의 진입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다시 스페인 탐사대의 예를 든다면,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고 4차에 걸쳐 이루어진 스페인 탐험대 가운데 오직 1개 팀만이 신대륙의 식물도감을 출판했던 점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⁴¹⁾ 이들 사례에서 시각 이미지는 자연에 대한 엄격한 관찰, 전문 지식의 통합적 구현이며 이들 자료를 책으로 출판하는 것은 탐사 이후의 활동으로서 또 다른 노력의 결정체이기도 했다.

이 연구한 *Objectivity*(2021)가 대표적이다.

41) 남미를 탐험했던 루이즈(Hipólito Ruiz)와 파본(Jose Pavón)은 힘든 탐사여행을 마치고 마드리드에 상당한 양의 식물표본과 2,300개의 그림을 가져왔다. 이들은 귀국 후에도 수집한 식물정보를 정비해서 *Flora Peruviana*를 출판하는데 14년이 더 소요됐으며, 이들은 탐사성과를 책으로 출간한 유일한 탐사팀이었다. Daniela Bleichmar (2012), *Visible Empire: Botanical Expedition & Visual Culture in the Hispanic Enlightenmen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6.

자연사에서 이미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스페인 탐사대는 대규모 시각 자료가 아카이브를 형성할 정도로 제국의 탐사 프로젝트와 이미지 제작이 더욱 긴밀하게 상호 작용했다. 또한 유럽의 자연과학자들은 식물조사에서 같은 책을 참고하고 같은 이미지를 보면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발행된 식물조사 이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간혹 발생하는 개념적 불일치도 이미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술하는 단어에 대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경쟁적으로 다양한 방법론의 탐사가 이루어졌지만 자연사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수용되었고 중요하게 참고되었다. 연구자들은 일련의 공유된 시각적 인식체계 속에서 표본, 편지, 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했고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찰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에 대한 지식 산출에 이미지는 중요하게 자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⁴²⁾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미지가 자연조사와 대상 관찰의 결과를 정교화하고 공유하는 데 기여했으며, 지식의 담론화에도 일정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탐사 수집물이 본국으로 보내졌을 때, 그림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고, 과학자가 후원자를 설득해서 탐사에 대한 지원을 받거나 본국에 행정업무를 부탁할 때에도 그림은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설득 수단이었다. 이로써 생생한 시각적 재현물은 그 어떤 자료보다도 진술의 중요성,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융합된 활동으로 평가받았고 중요하게 활용되었던 것이다.

자연의 이미지는 다양한 환경에서 보존이 어려운 표본의 한계를 보완하고 축적된 시각자료 아카이브는 자연사의 주요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며 현장 연구자의 관찰을 증명하고 그 오류를 반박하는 등 지식 산출과 확산을 담당하며 자연사 담론 형성에 기여했다. 자연탐구와 관련한 언어적, 분류사적, 시각적 표현은 자연에 대한 다층적인 생태 네트워크를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20세기를 전후해서 축적된 한국의 자연탐사와 관련한 시각자료를 과학, 자연사, 생태적 지식생산과 확

42) Daniela Bleichmar (2012), pp. 7~9.

산의 주변부에서 소환해 그 문화·생태적 역할과 의미를 규명하고 다층적으로 독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맥락 속에 플로렌스 크레인의 근대적 꽃도감의 특수한 역할과 의미를 위치시킬 수 있다.

V. 맺음말

식물도감에 수록된 식물은 항상 푸르고, 늘 꽃이 피었으며 무성한 잎으로 고정되어 완벽한 자연을 대변한다. 책의 여백은 실제 지리적 공간감이거나 식물 생장의 시간적 주기가 현실의 문맥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배경으로 자리하도록 했다. 그림은 식물이 성장했던 실외를 실내로, 들판을 페이지로 전환시켜 자연을 특별한 순간으로 응결시키는 미적 대상으로 표현된다. 이처럼 문화·생태적으로 표현된 식물 그림은 근대 식물조사에서 보이지 않았던 식물 고유종의 과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내용을 시각적으로 설득시켰다.

그림으로 표현된 식물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면서도 동시에 자연이라고 상상되는 완벽한 대상체이며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외부 세계의 식물정보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이미지를 통해 미지의 자연을 대체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제작된 식물그림은 현실의 대상을 대표하며 밀폐된 자연 표본실의 수집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연에 대한 문화·생태적 시각문화를 제공했다. 이처럼 식물조사 연구의 중심에 시각 자료를 위치시키면 훨씬 풍부한 이야기가 도출되며 근대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서 문화적이고 생태적인 맥락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미지 컬렉션을 통해 한국의 자연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횡단해서 검토, 경험하는 것은 여타의 텍스트 정보보다 자연에 대한 시각적 인식의 문제에 더욱 집중해서 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18세기 유럽은 관찰자이자 표현자로 훈련받은 식물학자가 예술가와 긴밀히 협력하며 자연에 대한 표준화 방식과 묘사에 대한 시각 자료를 축적했고 자

연사에 대한 시각문화를 구축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과학 이미지 생산에서 이제껏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의 서양인 탐사자에 대해 주목하게 하는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근대 식물조사 분야는 그 중요성에 비해 식물을 관찰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예술가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⁴³⁾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조망되었던 플로렌스 크레인은 식물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서 우러난 식물에 대한 관찰, 그리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적 능력을 모두 겸비함으로써 20세기를 전후한 한국의 식물연구에서 독특한 시각문화를 형성하는 데 주목할 만한 선례를 남겼다. 그녀는 야생화의 특징이 이상적으로 드러나는 각도를 잡아내고 고유한 식물종의 예술적, 식물학적 내용을 시각적이고 문화적으로 표현했다. 그녀의 꽃도감은 한국의 야생화를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식물정보와 자생 지역의 토착 문화를 융합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며 이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식물 표현 방식을 창조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43) 한국화가 정찬영(鄭燦英, 1906-1988)이 식물학자인 남편 도봉섭이 채집한 초본식물 48점을 그렸고 이 그림이 『조선식물도설-유독식물편(朝鮮植物圖說-有毒植物編)』(1948)에 도판으로 사용되어 한국 최초의 근대적 식물세밀화가로 조망받기 시작했다. 배원정(2019), pp. 25~28.

참고문헌

- 「具禮仁夫人繪畫展 延日滿員의 盛況」, 『동아일보』, 1933.10.20.
- 「具禮仁夫人繪畫展畫帖 其三 『檀君祭壇』」, 『동아일보』, 1933.10.20.
- 「具禮仁夫人繪畫展畫帖 其二」, 『동아일보』, 1933.10.20.
- 「具禮仁夫人繪畫展畫帖 其一」, 『동아일보』, 1933.10.19.
- 강시영, 「100여년 제주식물 세계화 획기적 업적」, 『한라일보』, 2016.3.1.
- 김선필 (2021), 『한국 천주교회사, 기쁨과 희망의 여정』, 도서출판 늘민.
- 배원정 (2019), 「근대 여성화가 정찬영(1906-1988)의 채색화조화 연구」, 『미술사학보』, 53(12), 미술사학연구회, pp. 7~33.
- 윤정란 (2020), 「근대전환기 서구 근대 식물학의 도입과 확산의 토대 구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2, pp. 215~251.
- 이 정 (2012), 「식민지 조선의 식물 연구(1910-1945): 조일 연구자의 상호 작용을 통한 상이한 근대 식물학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덕봉 (1961), 「최근세 한국식물학 연구사: 일제통치하 한국에 있어서의 식물학연구에 관한 시설과 그 실태」, 『아세아연구』, 4(2), pp. 101~149.
- 이상훈 외 (2019), 『영국왕립아세아학회 잡지로 본 근대 한국1』,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이승현 (2016), 「식물도감으로 본 한국 식물세밀화의 발전과정」,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재근 (2015), 「남장로교 선교사 존 크레인의 유산: 전도자, 교육자, 신학」, 『한국기독교와 역사』, 43, pp. 121~153.
- 이창복·이문호 (1987), 「프랑스 선교사의 한국식물 연구」, 『교회사연구』, 5, pp. 149~207.
- 一記者, 「크레인부인의著書 朝鮮꽃과民譚」, 『동아일보』, 1933.10.21.
- 임희모 (2021),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회의 순천선교부 개설 배경 연구: 1892년-1912년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53(1), pp. 247~276.
- 장 마르크 드루앵 (2011), 『철학자들의 식물도감』, 김성희(역), 알마.
- 장진성·최병희·김휘·이지연 (2010), 「외국인의 한반도 식물 채집행적과 지명 재고: Urban Faurie」, 『식물분류학회지』, 34(2), pp. 87~96.
- 정호경 (2024), 「영문 학술지 『트랜잭션(Transactions)』의 발행과 근대기 한국 생태연구의 대두」,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주최, 『2024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149~161.
- 정홍규 (2022), 『식물십자군: 식물 채집가 포리 신부의 식물 선교와 생태적 미래』, 도서출판

- 다빈치.
 _____ (2000), 『에밀 타케의 선물』, 도서출판 다빈치.
- 플로렌스 H. 크렌 (2003), 『최초로 서구에 소개된 플로렌스 H. 크렌의 한국의 야생화 이야기』, 윤수현(역), 민속원.
- 플로렌스 헤들스톤 크레인 (2008), 『푸른 눈의 여인이 그린 한국의 들꽃과 전설』, 최양희(역), 도서출판 선인.
- Barnhart, J.H. (1965), *Biographical Notes Upon Botanists*, 3, G.K. Hall(Boston),
- Bleichmar, Daniela (2012), *Visible Empire: Botanical Expedition & Visual Culture in the Hispanic Enlightenmen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2018), *Visual Voyages: Images of Latin American Nature from Columbus to Darwi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2009), "A Visible and Useful Empire: Visual Culture and Colonial Natural History in the Eighteenth-Century Spanish World," Daniel Bleichmar et al.(eds.), *Science in the Spanish and Portuguese Empires, 1500-1800*, Stanford University Press.
- Crane, Florence Hedleston, (1931), "Preface," *Flowers and Folk-Lore from far Korea*, Sanseido co., Ltd.
- _____, (1940), "Botanical Lore from Korea," *Journal of the New York Botanical Garden*, 41(486), pp. 144~146.
- Chang, Chin-Sung, et al. (2021), "Historical collections of vascular plants in the Korean Peninsula by three major collectors in the early 20th century: U. J. Faurie, E. J. Taquet and E. J. Wilson," *Biodiversity Data Journal*, 9, pp. 1~13.
- Editorial Department (1939), "Notes, News, and Comment," *Journal of the New York Botanical Garden*, 40(469), pp. 27~28.
- Jones, Caroline A. and Peter Galison (eds., 2014), *Picturing Science, producing art*, Routledge.
- Kemp, Martin (2000), *Visualizations: the nature book of art and sc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orishita, Mayumi (2005), "Florence Hedleston Crande: A Mississippi Woman Painting in Korea," mater's thesis, University of Mississippi.
- Trollope, M.N. (1918), "Arboretum Coreense: Being a Preliminary Catalogue of the Vernacular Names of Fifty of the Commonest Trees and Shrubs Found in Chosen," *Transactions*, 9,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pp. 69~90.

- _____ (1920), “Arboretum Coreense partII: Being a Second List of the Best-Known Trees and Shrubs Found in Corea, with Some Prefactory Notes on Those Contained in Part I,” *Transactions*, 11,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pp. 39~76.
- _____ (1920), “Arboretum Coreense partIII: Being a Third List of the Best-Known Trees and Shrubs Found in Corea,” *Transactions*, 11,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pp. 77~100.
- Wilson, E.H. (1918), “The Vegetation of Korea,” *Transactions*, 9,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pp. 1~68.
- _____ (1920), “Four New Conifers from Korea,” *Journal of the Arnold Arboretum*, 1(3), Arnold Arboretum of Harvard University, pp. 186~190.
-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홈페이지 (https://species.nibr.go.kr/endangeredspecies/home/redlist/redlist_new_view.jsp?link_gbn=ex_search&rlcls_sno=825&&page_count=, 2025년 3월 15일 접속).
- Deborah Freeland, “Florence Hedleston Crane,” *Mississippi Encyclopedia*. (<https://mississippiencyclopedia.org/entries/florence-hedleston-crane/>, 2025년 3월 15일 접속).
- The Arnold Arboretum, “1917-1919: Expedition to Eastern Asia,” (<https://arboretum.harvard.edu/expeditions/expedition-to-eastern-asia/>, 2025년 3월 15일 접속).

Abstract

A study on western botanical research and eco-cultural representation in modern Korea: Focusing on Florence Crane's *Flowers and the Folk-lore from far Korea* (1931)

Chung, Ho-Ky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cademic Research Professor)

This study examines the cultural and ecological significance of *Flowers and Folk-lore from far Korea*, a modern 'flower botanical book' produced by Florence H. Crane(1887-1973), who came to Korea in 1913 with her pastor husband, and studied Korean wild flowers. The author's wildflower data included watercolor image information of Korean flowers, modern botanical information such as scientific names and common names, and humanistic information collected from local residents, scholars, and recorded in old books about folk tales related to flowers. Florence's book, which organized approximately 148 species of native plants by month and wrote in English, contributed to introducing Korean nature culturally and ecologically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this book went beyond simply observing, classifying, and describing Korean nature and presented a new perspective on understanding modern Korean nature by including images and indigenous information.

Keywords: Modern Korean Botanical Book, Indigenous Knowledge and Common Name on Plant, Modern Natural Exploration, Knowledge Production through Image

논문 투고일: 2025년 03월 28일
심사 완료일: 2025년 04월 08일
게재 확정일: 2025년 04월 14일